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16 Number 8 • 8 2008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

과학 교육의 변화를 지지하는 루지애나 국회



지난 6월 11일 AP 뉴스는 루지애나 주 Baton Rouge에서 “루지애나 국회가 과학 교육의 변화를 지지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타전하였다. ‘공립학교의 과학 교사들이 진화론, 인간 복제, 지구 온난화 같은 주제를 가르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루지애나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 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법안(Senate Bill 733)은 Ben Nevers 상원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교사들이 학교 과학 교과서와 더불어 다른 교육 자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인데, 상원에서 36대 0, 하원에서 94대 3으로 통과 되었다. 상하 양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주지사 Bobby Jindal이 서명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루지애나 과학교육 법”으로 불리고 있다.

루지애나는 1981년에도 진화론만 가르치는 공립학교에서 같은 양만큼의 창조론을 가르치라는 법을 제정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은 1987년 미국 대법원에 의해 파기당하고 말았다. 이번엔 “루지애나 과학교육 법”을 만든 Nevers 상원의원은 현재의 교과서는 매 7 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부가적인 과학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부각시켜 그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 하였다. 이 법안의 목적은 그러한 부가적인 학습 자료들을 통해 “피판적인 사고 능력, 논리적인 분석력, 그리고 열려있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진화론 같은 과학 이론들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기록 되어 있다. 따라서 반대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쉽게 파기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이 Nevers 의

원의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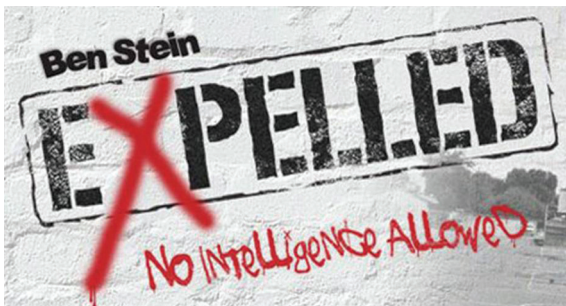
이 법안의 1C 항에는 “어떤 종교적인 교리를 증진시킨다거나, 특정 종교의 믿음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증진시키거나, 종교 혹은 무종교를 차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이 법률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부가 자료들이 종교적인 창조론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래서 이 법이 창조론과 지적설계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언론 기사는, ‘기독교의 창조론은 생명체가 성경의 창세기 과정을 거쳐 6,000 년 전에 시작되었다는 관점이고, 지적 설계는 우주가 지적 설계자로부터 기인한다는 믿음을 옹호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반대자들 중에 미국정교분리연맹(AUSCS)의 실행 이사인 Barry Lynn 목사는 “지금 루지애나는 21세기에 들어와 있다. 공립학교에서 종교적인 교육을 중단하라.” “이런 법은 정말 황당한 것이다.” “어떤 종교적인 자료가 교실에 들어가기만 하면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형편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까지 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 법의 지지자들은 부가적인 과학 정보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과학교사들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포함해서 전통적인 이론들을 반박할 수 있는 토론을 좀 더 자유롭게 하는 데 이 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미국에서 활발한 창조과학 사역을 하고 있는 Answers in Genesis의 입장은, 진화론자든 창조론자든 어떤 과학 교과도 진화론에 어긋나는 증거들을 가르치도록 압력을 받아서는 안되지만 교실에서 자발적이면서도 공개적으로 창조-진화의 논쟁을 할 것을 지지하고 있다.



지난 6월호 Creation Truth에 영화 “Expelled(추방된 사람들)”를 소개한 적이 있고, 같은 호에 미국창조과학연구소(ICR)가 텍사스주에서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청 했을 때 텍사스 고등교육위원회의 실사팀과 자문위원회가 각각 승인을

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압력단체의 반대 입장에 굴복하여 석사과정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이런 현상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진화론적인 패러다임 안에서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의 일방적인 횡포였다.

과학 분야는 두 부류로 나누어 가르쳐야 옳다. 하나는 물질과학, 자연과학 혹은 실험과학이다. 관찰과 실험과 반복실험을 통해 사실이 발견되고 확인 되는 이 실



험과학은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사실을 다루는 ‘과학’이다. 모든 창조과학자들도 이런 교육을 받고 있고 물론 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또 다른 분야의 과학 분야인 역사과학 혹은 기원과학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이 분야에서는 사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다루고 그 증거가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에 있는가를 설명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가정이 진화와 창조 혹은 무신론과 유신론인 것이다. 현재 역사과학은 진화와 무신론적인 패러다임에 지배되어 있어 과거에 대한 설명이 반경쟁적인 모습을 보여 주게 되어 있다.

그러면 과거에 대한 설명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나는 어디서 왔는가?’ 혹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대답에 따라서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라는 답이 결정 되기 때문이다. 이 정답은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발견해야 하고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

이번 루지애나주의 “과학교육 법”이 압력단체들의 로비에도 불구하고 주지사 서명을 통해 발효 되고 이를 통하여 진리와 비진리, 과학과 비과학이 구별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진화론의 홍수 속에서 생명을 잃게 될 영혼들이 진리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다른 주에도, 또 다른 주에서도,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최우성
서부지부장,
생리학박사

시간을 말하는 지구, 별들의 창조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취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창 1:14, 15).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 즉 우주 공간을 별들로 채우시는 모습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2007년 10월호),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면서 창조된 지구를 빛을 통해 활성화시켰다. 첫째 날 사용하신 빛(light)은 히브리어로 오르(ore)이다. 반면에 넷째 날 광명(lights)들은 마오르(maw-ore)인데 이는 빛의 제공자들(light-givers)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처음에 창조한 빛은 본질적인 빛을 의미하며, 나중의 광명들은 발전기와 같이 지구에 빛을 제공하는 도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날 창조된 빛은 넷째 날 태양을 창조하시기 전인 셋째 날까지 식물을 포함하여 지구에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해주었음에 틀림없다.

어느 것이나 그들이 창조될 당시를 보면 그 목적과 기능을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별들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그 광명들로 주야(낮과 밤)를 이루게 하였다. 실제로 낮과 밤은 첫째 날 지구와 빛을 만들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처음 빛의 역할을 그대로 태양과 별들이 감당하게 된 것이다. 다른 목적은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 작품 가운데 태초라고 하는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넷째 날 만들어진 별들로부터 시간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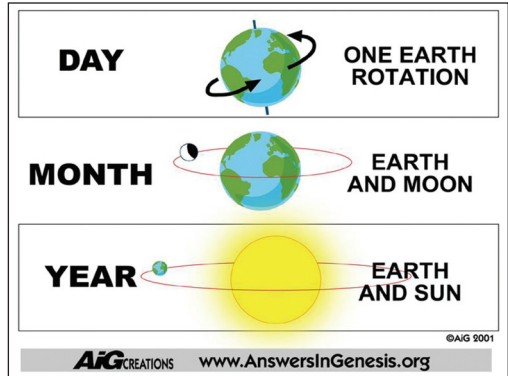
신 것이다.

징조(signs)는 히브리어로 오토(oth)라는 단어이다. 물론 이 단어는 점성술사들이 하는 그런 징조가 아님에는 틀림없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징조로서 사용하신 적이 있지 않은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징조로 별이 사용되었다. 이 단어가 다른 곳에 사용된 적이 있는데, 노아홍수가 끝나고 무지개 언약의 “증거(oth)”를 주실 때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다. 오늘날 무지개는 태양에서 오는 빛의 스펙트럼 현상에 의한 결과인데 이때도 이 태양을 언약의 증거로 사용하신 것이다.

사시(seasons)는 사계절을 의미한다. 사계절이 생기는 이유는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져서 태양 주위를 돌면서 생긴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구를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지구는 기울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각도는 지구가 어떤 하나의 광원에서 에너지를 받을 때 극에서 적도까지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분배하도록 하신 창조주의 지혜를 드러낸다. 사계절이라는 것은 추위와 더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구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일광시간의 길이에 의해 생긴다. 그러니까 23.5도 기울어진 지구가 태양이 창조됨과 동시에 그 주위를 돌면서 사계절의 주기가 시작된 것이다. 아울러 별자리의 변화를 통해서 사계절을 알 수 있다.

일자(days)는 이미 첫째 “날”에 언급되었지만 태양을 통해서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태양 없이 성경에서 첫째 날부터 “하루”를 언급했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모든 사람들은 하루는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졌을 때를 하루로 생각했으며,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하루가 된다는 것을 안 것은 지동설을 받아들이면서부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지구만으로 하루가 된다는 것을 이미 언급하고 있다.

연한(years)은 잘 알 듯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이루어진다. 사계절과 마찬가지로 이미 존재했던 지구가 태양의 창조와 함께 그 주위를 돌면서 연한이 시작되었다. 태양, 달, 별들을 통해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있음은 피할 수 없다. 지구만으로 인한 하루, 달을 통한 한달(음력), 태양과 별들을 통한 사계절과 일년을 이루시는 모습은 놀라운 창조자의 지혜를 엿보게 한다. 왜냐하면 해, 달, 별은 보이지 않는 듯하지만 자신의 피조물인 시간을 우리가 인지하도록 장치한 기막힌 기구이기 때문이다.



이재만

창조과학
선교회
부회장

창조과학 탐사여행 | 지역 소식

일본인 탐사여행

오는 8월 19-22일 세 번째로 일본인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매 년 8월 셋째 주가 되면 일본인들만을 위한 탐사여행이 일본 선교회 House of Siloam(미야가와 목사)의 한결같은 준비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미야가와 목사님 내외분께서는 오랫동안 일본 선교를 해오신 분인데 2006년 첫 번째 탐사여행을 마친 후 일본인에게 복음전파를 위해서 창조과학이 얼마나 중요한 도구인지 확인하신 후부터 탐사여행 보내는 일에 열심이십니다. 통역은 사모님께서 담당하시며, 이번 탐사여행은 여느 때와 달리 출발하기 전날 저녁에 세미나를 한 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번 탐사여행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본 창조과학회 회장 우사미 마사미 박사를 비롯하여 일본 기독교계의 대표적인 분들이 참석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탐사여행을 계기로 분기별 혹은 매달 한 팀씩 탐사여행을 추진할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탐사여행이 확대되는 데는 일본 1차 일본인 탐사여행 중 Zion Canyon에서





CGN-TV도 큰 역할을 했는데 이번 투어도 영상으로 담을 예정이며, 앞으로 탐사여행의 홍보 도우미로 귀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단 2회 밖에 되지 않았지만 창조과학 탐사여행의 효과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탐사여행을 통해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탐사여행 후에 미야가와 목사님께 간증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두란노는 일본어 “생명의 삶”에 탐사여행을 다녀오신 일본인들의 간증을 실을 예정입니다. 또한 이재만 선교사의 “창조과학 콘서트”도 내년 1월에 일본어로 번역 출판될 예정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0.25% 밖에 되지 않는 일본은 한국과 가까운 나라이며 경제 대국이지만 참으로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우며, 일단 들어가더라도 확대되지 않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창조과학에 맞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감히 가져 봅니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결실들은 미야가와 목사님 내외분의 순수한 동기와 헌신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 탐사여행이 지속되는 것과 아울러 탐사여행을 다녀온 분들이 성장한 기독교인으로 자랄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Creation Truth를 받는 모든 분들의 기도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몽골 국제대학 세미나

이재만 선교사는 오는 9월 몽골 국제대학(MIU, 권오문 총장)에서 MIU의 교수들에게세미나 인도차 몽골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몽골 사람들은 공산주의 유물론적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잘 알려졌듯이 공산주의는 그 뿌리를 진화론에 두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생존경쟁의 원리를 계급투쟁이라는 용어로 바꾸며 공산주의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번 방문이 공산주의의 뿌리인 진화론에서 벗어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몽골에는 화석도 많이 발견되는데, 이번 방문 때 몽골의 고비사막 탐사여행 가능성도 둘러 볼 예정입니다.



아버지학교 탐사여행

9월 29일-10월 1일과 10월 6-8일 두 차례 각각 3일씩 아버지학교 탐사여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탐사여행은 10월 2-4일의 아버지학교 세계대회(얼바인 온누리교회)에 참석하는 분들을 위한 탐사여행입니다. 이미 아버지학교의 국제 본부장인 김

성목 장로님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미주 임원들이 탐사여행에 참석하여 그 중요성을 확인하여 세계대회와 함께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탐사여행을 통해 창조과학이 교회를 비롯하여 기독교 기관과도 연결되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월서 온누리교회 요세미티 빙하시대 탐사여행

오는 8월 30 - 9월 1일에 월서 온누리교회는 요세미티 빙하시대 탐사여행을 떠납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빙하시대에 초점이 맞추어 있는데, 커다란 레드우드로 유명한 세코야 국립공원, 탄산칼슘이 침전되어 형성된 tufa로 유명한 Mono Lake, 한눈에 분화구를 볼 수 있는 Panum Crater, 빙하시대 화산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Owens Valley Gorge, 화강암 지형의 진수인 Alabama Hills 등도 경유하게 됩니다. 이들 경유지를 돌며 노아홍수와 연결되어 있는 빙하시대의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 탐사여행

지난 6월 9-12일 시애틀 형제교회와 세계로 선교회(본국)가 함께 탐사여행을 마쳤습니다. 시애틀 형제교회는 매년 6월에 열리는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의 컨퍼런스를 마치고 담임이신 권준 목사님 내외분과 교인들, 그리고 컨퍼런스 제 6기 중부지부 창조과학학교 수료

스를 참석했던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세계로 선교회(대표 변희관 목사님)는 본국과 여러 나라, 캠퍼스, 직장 등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와 목사님들로 구성되어 참석했습니다.

또 한 6월 16-19일은 서울시 장안동에 위치한 장안제일교회(신동채 담임목사)에서 탐사여행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만 선교사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최우성 선교사가 생물학 분야를 담당했습니다.

뉴스레터 발송 자원봉사자들

지난 4 개월간 매월 둘째 주 수요일 4~5명의 헌신 된 집사님들이 뉴스레터 Creation Truth 발송



자원봉사자들의 뉴스레터 발송작업(아래)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각기 다른 교회에 출석하지만 매주 모여 중보기도를 하는 아름다운 팀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중부 지역 소식

시카고 헬로쉽교회 마하나임 청년부부를 위한 12주 창조과학 세미나(3월 2일 - 6월 8일)를 마쳤습니다. 강남수 목사님의 지도로 18명이 열심히 참여 해왔습니다.

시카고한인교회(담임 서창권 목사)에서 4월 7일 개강하여 6월 16일 마지막 수업까지, 20대부터 70대까지, 멀리 락포드에서부터 시카고 인근에 이르기까지 12개 교회에서 약 50 여명이 참여한 제 6기 창조과학학교가 43명의 수료자를 배출하고 종강 하였습니다. 마지막 수업은 서로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모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동용 박사는 6/29-7/2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JAMA대회 선교트랙에서 창조과학 선교사례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7월 4-5일은 시카고 지역에서 출발하는 제 2회 창조과학여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은 첫째 날은 오하이오 리버 화석공원 화석탐사, 둘째 날은 AiG 창조박물관을 관람하게 됩니다(문의 847-845-5368).

시애틀 형제교회와 세계로선교회 탐사여/ Zion Canyon에서





바벨탑?? 바벨탑!!! (3)

이집트가 먼저

바벨탑이 먼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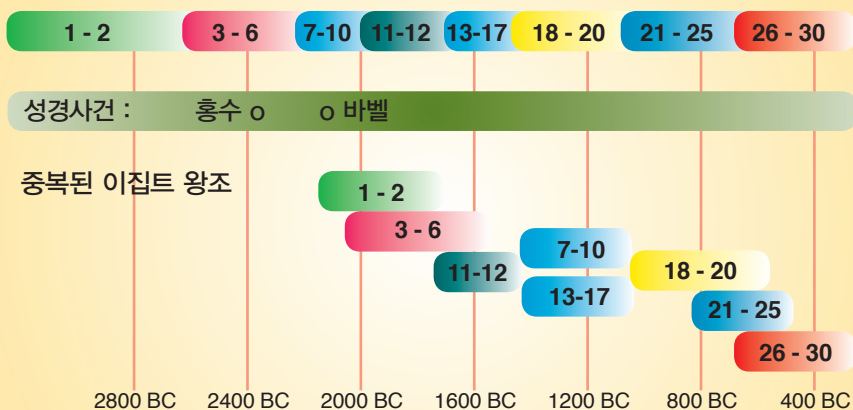
노 아
셈
아르박사
셀 라
에 벨
벨 렉
르 우
스 룩
나 홀
데 라
아브라함

바벨탑 사건은 노아홍수(BC 2350 년 경) 이후 사건이고, 역사에 대한 세속적 기록에 의하면, 이집트는 BC 3000 년 경 시작되고 피라미드는 BC 27세기 무렵부터 건축되기 시작했다고 하기 때문에 피라미드는 홍수 이전의 건축물일 것으로 생각하고 성경의 역사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지구를 멸망시켰다는 성경의 노아홍수 사건(벧후 3:6)에 비추어 보거나 전지구적인 노아홍수의 증거들(지표의 75-80%를 덮고 있는 지층, 생물체의 주 성분인 탄소의 99%가 지하에 매장 된 것 등)에 비추어 보면 노아홍수 격변 이전의 어떤 건축물도 남아 있기 어렵다. 따라서 성경역사가 사실이라면 피라미드는 노아홍수 이전의 건축물일 수 없다.

대부분의 국가는 건국 일을 경축하고 있다. 로마는 BC 753 년, 미국은 AD 1776 년, 한국은 BC 2333 년을 기념하고 있다. 이런 연대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비교가 되어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데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BC 3 세기에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유대가 각기 자기 나라가 가장 오래 되었다고 (그래서 우월감을 갖도록) 주장하는 '역사전쟁' 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기 나라가 가장 오래 되었다고 하려는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고, 사람들이 나누어진 바벨 사건과도 잘 비교가 되지 않는다.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성경에 의하면 바벨탑 사건의 정확한 연대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 사건은 노아홍수와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고 노아의 5대손 벨렉 때 세상(the earth)이 나뉘었다는 흥미로운 코멘트가 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이 때를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해로 설명하고 있다. 그 이유는 벨렉은 창세기 10장의 족보 중앙에 위치해 있고 계속

일렬로 배열된 전통적 이집트 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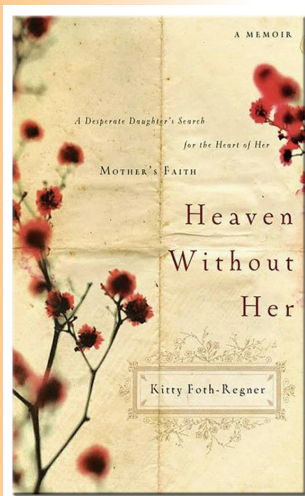
고고학자 David Down에 따르면, 다수의 이집트 파라오들이 동시대에 다른 지역에서 다스렸을 가능성이 있다

된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을 설명하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벨렉 때 바벨탑 사건이 발생 했다면, 벨렉은 노아홍수 후 101년 후에 태어났고 239세를 살았기 때문에 바벨 사건은 노아홍수 후 292년에 태어난 노아의 10세 손 아브라함과 노아의 중간인 BC 2200 년 경(노아홍수 후 약 100 여 년 후)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아브라함 이전의 성경 역사는 수메르나 이집트 문명의 왕 족보에 비해 훨씬 짧다. 그러나 이들 역사들은 제사장들이나 기록자들이 자기 역사가 더 우수함을 나타내기 위해 일부러 늘려 놓아 어떤 사람들은 신격화 되어 거의 수천 년 혹은 수만 년 살았던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왕의 숫자가 다른 족보들이 여러 개 있고, 다른 지역의 동시대 왕들을 일렬로 늘어 놓기도 하여 성경 역사에 비해 훨씬 긴 족보를 갖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왕의 족보들은 현대 과학으로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과거의 일식이나 월식, 별들과 행성들의 위치와 같은 고대의 천문학적 기록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만약 이 족보가 수십 년 혹은 수세기 늘려놓아 성경의 역사보다 길어지게 된 것이라면 그 불일치가 설명 될 수 있게 된다(그림). 실제로 BC 2000 년을 넘어서는 역사는 증명되지 않는다.

이 세상 역사들은 자기 역사를 늘려놓았을 뿐 아니라 언어가 나누어진 것에 대한 언급도 없다. 인류는 한 조상에서 출발한 것이 분명하므로 언젠가 언어가 나뉘었음은 분명하지만 어느 민족도 (글을 만들기는 했지만) 말을 만들었다는 기록은 없다. 성경도 바벨 사건의 시각을 정확히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말이 나뉘는 사건과 시기는 노아홍수와 아브라함의 중간쯤에 하나님께 대항하게 된 것이 그 원인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바벨에서, 또 한 번의 대 반란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 앙심을 품은 사람들은 이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된다(다음 호에 계속). -최우성

그녀가 없는 천국



“거기서 봐요, 엄마.” 이것이 키티 포스-레그너(Kitty Foth-Regner)가 어머니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양로병원에서 세상을 떠나자 키티는 그 약속을 지키기로 결정을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 지를 몰랐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천국에 있는 자기 집에 가기를 고대하던 돈독한 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키티에게 종교는 대답을 주지 못했고 자기가 알기에 천국은 그저 소망하는 상상일 뿐이었습니다.

키티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재능을 의지하며 살아 왔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했었지만 대학에 들어 간 지 얼마 안 되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계기로 부모의 신앙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라는 것은 동화에 불과했습니다. 과학에 의하면 하나님은 필요 없었고 삶이란 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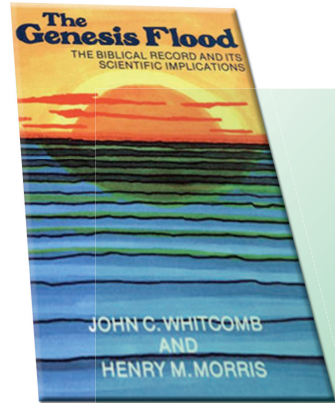
그러나 그녀 어머니를 죽게 했던 심각한 병은 키티에게 삶과 그녀 주위 세계에 대한 가정들을 살펴 보게 하는 축진제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없는 천국>은 그녀가 해답들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을 기록한 매력적인 책입니다. 각 장은 자기 어머니의 마지막 날의 긴 시간 중의 한 부분과 그 직후부터 시작해서 키티의 영적 여정이 연이어 기술되어 있습니다.

키티는 예전에 논리적인 것, 남녀동등을 성공의 길로, 성공이 행복에 이르는 길로 알았습니다. “스물 여섯 살쯤 된 저에게 이런 관점은 거의 완벽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늙고 치명적인 병이 든 작은 한 여인이 그 생각을 불어버리고 천국이 다가오게 했어요.”

갑자기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한 삶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간다는 어머니의 신앙이 정말 맞는지 어머니를 다시 보게 될 곳이 있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일생에 처음으로 키티는 우리들의 종착역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찾아보기 시작 했습니다. 가장 먼저 C.S.루이스가 지은 <순전한 기독교>가 손에 들어 왔습니다. 여동생이 선물로 준 것인데 수년간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읽어보니 루이스가 생각한 것이 정확한 것 같았습니다. 전능한 창조자가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독

특한 주장이 진실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루이스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어찌지? 루이스의 책을 더 읽고, 학습용 성경도 샀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고통을 허용할 수 있단 말인가?”라는 전형적인 무신론자들의 반대 의견과 거기에 대한 기독교의 반응들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기원 이론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도 찾아 보았는데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이 사실이 아닌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무척 놀랐습니다. 반면에, 증거들은 “지적인 설계자를 끈질기게 가르키고” 있었습니다. 키티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기원에 대한 토론들을 열심히 공부하게 되니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야만 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세계 주요 종교들의 교리들도 살펴 보았지만 그 창조자는 성경의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없는 천국〉 현사에서 키티는, “John Whitcomb과 고 Henry Morris 박사*,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이 지성적인 여인이 발견한 것들을 통해 당신도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은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구속자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키티는 이제 어머니에게 한 약속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Beth Mull, 〈Heaven Without Her: A Desperate Daughter's Search for the Heart of Her Mother's Faith〉의 편집인

* 〈창세기 홍수(Genesis Flood)〉를 써서 현대 창조과학의 문을 열었던 분들임.

AFTER EDEN

by Dan Lietha



진리는 절대적

그러나

깨닫는 것은

상대적

창조과학탐사

그랜드캐년을 돌아보고

몇 일 전 “버킷리스트” (잭 니콜슨, 모간 프리먼 주연) 영화를 감상 하였습니다. 영화내용은 같은 병실에서 만난 시한부 암 말기 환자 둘이 죽기 전에 해 보고 싶은 일들을 List로 만들어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여 나갑니다. 우리에게 당 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야? 하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강추)

우리 모두 언젠가는 가야 하는 시한부 인생일진데 혹시 누가 “죽기 전에 꼭 가보 야 할 곳은 어디라고 생각 되십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이제만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그랜드 캐년 창조과학탐사”라고 대답하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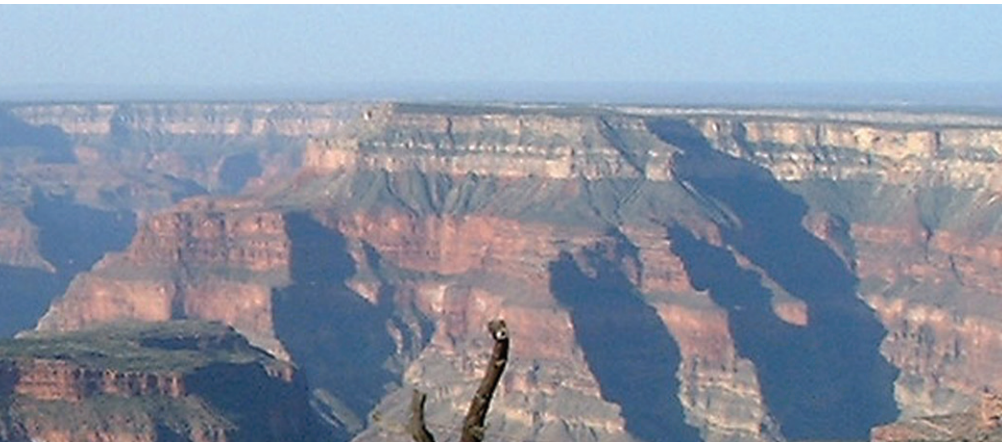
어느 날 한 후배가 “형님은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세 요?” “그럼 믿지!” “그럼 일주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고요?” 대답이 웅색하여 집니다.” 믿음이 다 가슴으로 믿어 지는 것은 아니지, 성경을 다 내 머리로 이해 할 수는 없지, 성경은 선포야! 내 이해와 지식을 초월하지, 그래서 가끔은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습니다아~ 쭈여 쭈여 “하는 것 아니겠소?”

그랜드캐년 창조과학탐사를 다녀 온 분 마다 창세기가 다시 해석이 되어 좋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보고 싶기도 했고 한편 너무 교리적인 학습과 단편적인 논리로 일방적인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뉘이 뒤틀리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떠난 탐사여행은 놀랍게도 그랜드캐년의 탐사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의 탐사여행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만 선교사님의 첫번째 멘트는 이번 탐사가 여러분의 패러다임에 도전 해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이라는 엄포는 사실로 다가 왔습니다.

그랜드 캐년의 선셋비유 포인트에서 본 그 웅장한 자연의 신비 앞에서 “웅장하다! 멋있다! Amazing!” 하며 탄성을 지르고 한편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그랜드캐년의 기행문을 본 이래로 막연히 가보고 싶었던 곳을 왔다라는 사실에 감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다시 버스에 탄 우리 일행에게 선교사님은 이 버스를 노아의 방



주라 생각하고 노아의 눈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관찰하라고 하십니다. 아담 할아버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들어 온 세상, 그 대홍수 이전의 세상은 그래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형이었습니다. 그 세상은 아마도 지금의 100배정도의 나무가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답니다. 지금 보다 100배 살기 좋은 세상, 덥고 춥고, 습하고 메마르지 않은 그런 땅,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는 그런 땅, 그래서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8~9백 년을 살아가던 땅, 그런 세상을 살다가 홍수로 산이 쪼개지고 땅이 갈라지고 호수가 있던 자리가 그 바닥을 들어낸 그 세상, 하늘의 색깔도 바뀐 것을 보았을 때 노아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 노아에게는 내가 보이는 이 장엄한 파노라마는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요 인간의 죄악에 대한 경고로 보였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것들, 옳은 것들, 과연 내가 주장하고 지켜 나아가야 한다는 그 가치관이라는 것들 내 패러다임에 엄청난 쥘라미가 몰려옵니다. 욥38:4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스콧 팩이라는 분은 “거듭 난다는 것은 나의 나르시즘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더 이상 토를 달고 더 이상 깨달아알려고 대단한(대가리가 단단한)머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 이리 저리 박터지는 짓을 중단합니다. 대신 그냥 엎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만이 아닌 주인으로 다시 한번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내 생각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생각이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나의 영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나의 영혼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시애틀형제교회 남해진 집사

2008년 ACT Schedule

7/1-5 창조과학 탐사여행 (애틀란타 새한장로교회, 404-509-8358)
 7/4-5 AIG 창조뮤지엄 관람여행 (시카고출발-AIG뮤지엄, 중부팀, 847-845-5368)
 7/12 뉴호프채플 교사회(Ark for Kids, 818-547-9191), CA
 7/13 동부연합감리교회 (세미나, 이재만, 213-500-5162), CA
 7/17-19 창조과학 탐사여행 (모집, 213-381-1390)
 7/19 뉴호프채플 교사회(Ark for Kids, 818-547-9191), CA
 7/20 멀세드 사랑의교회 (세미나, 이재만, 209-384-1230), CA
 7/23 에브리데이 교회 (세미나, 이재만, 818-832-6628), LA, CA
 7/25-27 창조과학 탐사여행 (터링가 소망장로교회, 818-331-2481)
 7/29-31 창조과학 탐사여행 (LA 온누리교회 GM 사역부, 818-249-3139)

8/1-3 창조과학 탐사여행 (LA 온누리교회, 213-446-2821)
 8/4-6 여름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 (213-381-1390)
 8/8-10 창조과학 탐사여행 (뉴호프 채플, 818-547-9191)
 8/14-16 창조과학 탐사여행 (선한목자 장로교회, 909-772-9233)
 8/16-17 몽고메리제일감리교회 중고등부 (세미나, 최우성, 334-954-9055), AL
 8/19-22 창조과학 탐사여행 (House of Siloam, 일본인, 951-245-9500)
 8/25-28 창조과학 탐사여행 (에브리데이교회, 818-832-6628)
 8/30-9/1 창조과학 탐사여행 (월셔/얼바인/샌디에고 온누리교회)

9/5-7 주님의 영광교회 (세미나, 이재만, 213-422-4939), CA
 9/12-27 몽골 국제대학, 캄보디아, 본국 (세미나, 이재만)
 9/29-10/1 창조과학 탐사여행 (아버지학교 국제 컨퍼런스)

10/6-8 창조과학 탐사여행 (아버지학교 국제 컨퍼런스)
 10/10-12 한마음 침례교회 (세미나, 이재만, 925-828-3219), CA
 10/13-16 빙하시대 탐사여행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713-789-5577)
 10/31-11/2 뉴욕성결교회 (세미나, 이재만, 718-948-0339), NY

11/10 동양선교교회(평생 학습원, 이재만), CA
 11/27-29 창조과학 탐사여행 (동양선교교회, 323-466-1234)

12/29-31 창조과학 탐사여행 (샌디에고 한빛교회, 858-733-1129)

후원 |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